

국 어

<총 평>

연도	유형	문법/규범	비문학/독해	문학	어휘/한자
2020년		4(↓2)	9(▲1)	5(▲1)	2
2019년		6	8	4	2

2020 지방직 9급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은 중간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상단의 분석표와 같이 문제 유형별 출제비중은 문법/규범은 2문제가 줄어들었으며, 비문학/독해와 문학은 각 1문제씩 늘어났습니다. 이는 국가직 시험에서 독해와 문학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유사한 추세입니다. 또한 어휘/한자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문법/규범은 크게 까다롭지 않았지만 정확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 정답을 맞힐 수 있었으며, 독해 문제의 경우 지문이 짧은 대신 다양한 유형이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대다수 문제들이 기존 기출문제의 변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그동안 기출문제를 충실히 풀고 기출 변형 문제풀이를 통해 꾸준히 훈련을 한 수험생들의 경우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문법/규범의 경우에는 이번 지방직 수준 난이도의 기출 변형 문제로 꾸준히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 비문학/독해의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로 매일 2~3문제씩 풀고 감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문학 또한 현대시/현대소설/고전시가/고전소설 등 유형별로 매일 2~3문제씩 풀고 작품 분석을 하면서 대비합니다.
- 어휘/한자의 경우에는 암기만이 우리의 살길이므로 매일 30분씩 시간을 할당하여 기출 어휘/한자를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단순 암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분량, 암기 방식을 바꿔 가며 여러분의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결과는 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남은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13.  
기미진 올림

★ 기미진 선생님과 소통하기

네이버, 유튜브에서 [기미진 기특한 국어]를 검색하세요.

-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pskorean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edu\_korean\_edu
- 유튜브 채널:youtu.be/0ORfvstCC6g

문 1.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전앞’과 마찬가지로 ‘피해(被害)를 당하다’에도 의미의 중복이 나타난다. ‘피해’의 ‘피(被)’에 이미 ‘당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① 형부터 먼저 해라.
- ② 채훈이는 오로지 빵만 좋아한다.
- ③ 발언자마다 각각 다른 주장을 편다.
- ④ 그는 예의가 바를 뽀뽀러 무척 부지런하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중의적인 문장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조사 ‘부터’는 ‘어떤 일이나 상태 따위에 관련된 범위의 시작점’을 나타내고, 부사 ‘먼저’는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앞서서’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미가 중복됩니다.
- ② [O] 부사 ‘오로지’는 ‘오직 한 곳으로’의 뜻을 가지고 있고, 조사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므로 의미가 중복됩니다.
- ③ [O] 조사 ‘마다’는 ‘날마다 모두’의 뜻을 가지고 있고, 부사 ‘각각’은 ‘사람이나 물건의 하나하나마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미가 중복됩니다.
- ④ [X] ‘-르뽀뽀러’는 ‘어떤 일이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른 일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고 ‘무척’은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이’의 뜻을 지닌 부사이므로 의미의 중복이 없습니다.

문 2. 다음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의 표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김 대리: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장: 괜찮아요. 오랜만에 최 대리하고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허허허.  
 김 대리: 박 부장님은 오늘 못 나오신다고 전해 달라셨어요.  
 이 부장: 그럼, 우리끼리 출발합시다.

- ①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한다.
- ②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 ③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 ④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말하기와 듣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X]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의 일치점을 극대화하는 ‘동의의 격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② [O] 상대방에게 부담이 가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요령의 격률’에 해당합니다.
- ③ [X] 요령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화자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관용의 격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 ④ [X]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는 ‘찬동의 격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 기특 플러스 공손성의 원리

- 요령의 격률: 상대방에게 부담이 가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정중하고 공손한 말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말하는 것이다.
  - ④ 죄송하지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관용의 격률: 요령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화자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 격률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자신이 떠맡음으로써 남을 높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라는 것이다.
  - ④ 제가 잠시 만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찬동의 격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④ (친구가 자신의 애인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친구에게) 참 쨌깁은 사람인 것 같다!
- 겸양의 격률: 찬동의 격률을 화자의 관점에서 말한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④ 너는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구나. / 아니에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 동의의 격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의 일치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 ④ 자기야, 오늘 영화 한편 보는 게 어때? / 영화? 좋지, 그런데 말이야, 나 뮤지컬 초대권 2장이 있는데 이게 오늘까지라서... 뮤지컬 보러 가도 괜찮은데... / 그래? 그러면 뮤지컬 보러 가지 뭐. 영화는 다음에 봐도 되니까.

문 3.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글의 내용으로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최대 게임 업체의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청소년들에게 성인 광고 문자가 대량 발송된 사건을 예로 제시한다.
- ②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통계를 활용하여 해당 사안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 ③ 사회성 결여, 의사소통 장애, 집중력 저하 등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들을 열거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한다.
- ④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할당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임을 지적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조건에 맞는 글쓰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X] 게임 업체의 고객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대량 문자 발송 사건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과 관련이 없습니다.
- ② [O] 인터넷에 중독되는 청소년의 비율 증가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 ③ [O] 사회성 결여, 의사소통 장애, 집중력 저하 등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현상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 ④ [O] 청소년 대상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할당된 예산 문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 문제 해결과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문 4.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 ① 하노라고 한 것이 이 모양이다.
- ② 물품 대금은 나중에 예치금에서 자동으로 결제된다.
- ③ 예산을 대충 견잡아서 말하지 말고 잘 뽑아 보세요.
- ④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가름합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발음이 비슷한 단어의 쓰임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O] '-노라고'는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애쓴다는 의미로 '쓰노라고 쓴 것이'는 올바른 표현입니다. 참고로 '-노라고'는 앞 절의 사태가 뒤 절의 사태에 목적이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입니다.
- ② [X] 문맥상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나타내는 '결제(決済)'를 써야 맞습니다. 참고로 '결제(決済)'는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하다'는 뜻입니다.
- ③ [X] '견잡다'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를 의미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예산을 대충 짐작하는 상황이므로 '겉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라는 뜻의 '겉잡다'를 써야 합니다.
- ④ [X] 제시된 문장은 행운을 기원하는 것으로 치사를 대체한다는 내용이므로 '가름합니다'를 써야 합니다. '가름하다'는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가름하다'는 '조개거나 나누어 따로따로 되게 하다', '승부나 등수 따위를 정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 기특 플러스 '겉잡다/겉잡다'

- 겉잡다/겉잡다

겉잡다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④ 병세가 <u>겉잡</u> 을 수 없게 악화되었다.
겉잡다	겉으로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 ④ 그것은 <u>겉잡아도</u> 이들은 걸릴 일이다.

문 5.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집에서 그 샘으로 가는 길은 한 길이었습니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물 길러 가는 인기척을 들을 수 있었지요. 서로 짝 일도 아닌데 새벽 제일 맑게 고인 물은 네 집이 돌아가며 길어 먹었지요. 순번이 된 집에서 물 길러 간 후에야 따리 끈 입에 물고 삼작 들어서시는 어머니나 물지게 진 아버지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집안에 일이 있으면 그 순번이 자연스럽게 양보되기도 했었구요. 너넹하지 못한 물로 사람들 마음을 너넹하게 만들던 그 샘가 미나리밭에서는 미나리가 푸르고 양금 내리는 감자는 잘도 썩어 구린내 훅 풍겼지요.

- 함민복, 「그 샘」 -

- ① '샘'을 매개로 공동체의 삶을 표현했다.
- ② 과거 시제로 회상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 ③ 공감각적 이미지로 이웃 간의 배려를 표현했다.
- ④ 구어체로 이웃 간의 정감 어린 분위기를 표현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시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함민복의 <그 샘>은 물질적으로는 너넹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서로 양보하고 배려함으로써 마음만큼 너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시의 제목이자 중심 소재인 '샘'은 이웃 간의 훈훈한 정을 쌓고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바람직한 공동체의 삶을 주제로 구어체의 종결 방식을 통해 정감 어린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① [O] '샘'은 이웃 간의 정을 쌓고 느끼게 해 주는 매개체입니다. 하나의 샘에서 나오는 너넹하지 않은 물을 네 집의 이웃들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나눠 먹는 것으로 공동체의 삶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② [O] '들을 수 있었지요.', '길어 먹었지요.', '볼 수 있었지요.' 등 과거 시제를 통해 회상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③ [X] '공감각적 이미지'는 어떤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하여 표현하는 것입니



문 9. 다음 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 작품의 복제 기술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본을 보러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술 작품의 특성상 원본 고유의 예술적 속성을 복제본에서는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진은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중요하지 않지만, 회화는 붓 자국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제본이 원본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다. 회화와 달리 사진의 경우, 보통은 '그 작품'이라고 지칭되는 사례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20세기 위대한 사진작가 빌 브란트가 마음만 먹었다면, 런던에 전시한 인화본의 조도를 더 낮추는 방식으로 다른 곳에 전시한 것과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갖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사진의 경우, 작가가 재현적 특질을 선택하고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 ① 복제본의 예술적 가치는 원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
- ② 복제 기술 덕분에 예술의 매체적 특성이 비슷해졌다.
- ③ 복제본의 재현적 특질을 변형하는 방법은 제한적이다.
- ④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의견·견해 추리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④ [O] 이 글은 예술 작품의 특성상 원본 고유의 예술적 속성을 복제본에서는 느낄 수 없다는 생각이 잘못이며 다른 예술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제본도 원본과는 다른 별개의 예술적 특성을 담보할 수 있다'가 이 글의 주장입니다.

문 10. 밑줄 친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는 가수가 되려는 꿈을 버리고 직장을 구했다.  
→ 遺棄하고
- ② 휴가철인 7~8월에 버려지는 반려견들이 가장 많다.  
→ 根絶되는
- ③ 그는 집 앞에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간 사람을 찾고 있다.  
→ 投棄하고
- ④ 취직하려면 그녀는 우선 지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이다.  
→ 拋棄해야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용례에 주의해야 할 한자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① [X] '내다 버리다'를 의미하는 '遺棄하다(유기하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꿈을) 버리다'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하러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다'를 의미하는 '拋棄하다(포기하다)'입니다. \* 拋棄(던질 포, 버릴 기)  
② [X]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리다'를 의미하는 '根絶하다(근절하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반려견을) 버리다'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내다 버리다'를 의미하는 '遺棄하다(유기하다)'입니다. \* 遺棄(남길 유, 버릴 기)  
③ [O] '(쓰레기를) 버리다'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내던져 버리다'를 의미하는 한자어 '投棄'입니다.

하다(투기하다)'입니다. \* 投棄(던질 투, 버릴 기)  
④ [X] '하러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어 버리다'를 의미하는 '拋棄하다(포기하다)'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습관을) 버리다'와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리다'를 의미하는 '根絶하다(근절하다)'입니다. \* 根絶(뿌리 근, 끊을 절)

문 11. 다음 글의 ㉠~㉣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 리셋 증후군이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뾰족하고 있다.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버튼만 누르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행동한다.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은 1990년 일본에서 처음 생겨났는데, 국내에선 1990년대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리셋 증후군 환자들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여 게임에서 실행했던 일을 현실에서 저지르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지닌 청소년들은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막다른 골목으로 몰 듯 관계를 쉽게 끊기도 한다.

리셋 증후군은 행동 양상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편이라 쉽게 관별하기 어렵고 진단도 쉽지 않다. ㉣이와 같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실과 인터넷 공간을 구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① 불필요한 이중 피동 표현으로 어법에 맞게 ㉠을 '뾰고'로 수정한다.
- ② 글의 맥락상 자연스럽게 않으므로 ㉡은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긴다.
- ③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은 '칼로 무를 자르듯'으로 수정한다.
- ④ 앞 문장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을 '그러므로'로 수정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쓰기의 과정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① [X] ㉠의 '뾰족'은 이중 피동 표현입니다. 또한 주어인 '리셋 증후군'은 '뾰고'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피동사 '뾰히고'를 써야 합니다.  
② [O] 첫 번째 문장은 인터넷 중독의 한 유형으로 리셋 증후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이 언제 생겨났고 국내에서 언제부터 쓰였는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 첫 번째 문장 뒤로 옮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의 앞에 제시된 문장은 '리셋 증후군 환자들의 증상'을 서술한 문장이므로 ㉢을 먼저 이야기한 뒤에 '그 증상'을 서술하는 것이 맥락상 자연스럽습니다.  
③ [O] ㉢의 앞에서 청소년들은 무슨 일이든지 쉽게 포기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한다고 하고 있으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처럼 관계를 쉽게 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은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결정했다는 뜻인 '칼로 무를 자르듯'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④ [O] ㉣의 앞에 제시된 문장은 리셋 증후군의 진단이 쉽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의 뒤에 제시된 문장은 리셋 증후군 예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러므로'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라 컷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하고, 그중 샌님과 서방님은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③ [X] 말뚝이가 양반을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기 전에 음악과 춤이 멈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컷거리장단에 맞춰 풍자하는 사설을 늘어놓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O] '도령(삼형제 중 막내)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 다'에서 선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특 플러스 - 작품 분석

<봉산탈춤>

갈래: 가면극, 민속극, 구비 희극 탈춤(대본), 전통극

연대: 조선 후기

주제: 양반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비판

전승 지역: 황해도 봉산

성격: 평민적, 해학적, 풍자적, 탈중세적, 근대지향적

특징: ① 양반을 조롱하는 재담과 언어유희가 돋보임  
 ② 서민적인 표현으로 당대 민중의 생활상을 드러냄

표현: ① 서민적인 비속어와 양반투의 한자어나 한시구를 동시에 구사하여 언어의 양면성, 대담성, 솔직성 등이 나타남  
 ② 말의 성찬으로 인한 자유분방한 열거와 대구, 인용, 반어, 언어유희, 익살, 과장 등이 풍부해 고도의 풍자성이 있음  
 ③ 등장인물들이 희화화되어 묘사됨

구성: ① 7개의 독립된 과장(마당)이 유니버스식으로 배열  
 ② 목중, 노장, 양반, 그리고 미야의 독립된 네 개의 놀이에 사당춤, 사자춤, 원숭이 놀이가 곁들여 7개의 과장으로 전체를 구성  
 ③ 주제 별로 몇 개의 드라마가 한 테두리 속에 포함

문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해도해도 너무한다.
- ② 빠른 시일 내 지원해 줄 것이다.
- ③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 대접하는데나 쓴다.
- ④ 소비 절약을 호소하는 정공법 밖에 달리 도리는 없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띄어쓰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X] '해도해도'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해도V해도 너무한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 ② [O] '내'는 일부 시간적, 공간적 범위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 '일정한 범위의 안.'을 의미하는 의존 명사입니다. 따라서 '시일 내'와 같이 앞말과 띄어 씁니다.
- ③ [X] 관형어 뒤에서 '것', '곳' 또는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데'는 의존 명사이므로 '대접하는 데나'와 같이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 '것':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곳':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경우': 머리 아픈 데 먹는 약.)
- ④ [X] '밖에' 다음에 부정적 어휘가 붙어 '오직 그것뿐'을 나타내면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씁니다. 따라서 '정공법밖에'와 같이 써야 합니다.

□ 기특 플러스 '밖에'의 띄어쓰기

'밖에' 다음에 부정적 어휘가 붙어 '오직 그것뿐'을 나타내면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ㄴ/ㄹ밖에'가 '다른 수단이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는 경우에도 붙여 쓴다.

- ㉡ • 남자 대 여자의 대리전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
  - 멍하니 지낼 수**밖에** 없었다.
  - 떨어져 봤자 조금 다치기**밖에** 더하겠나?
  - 이 문제를 풀 사람은 **그밖에** 없다.
  - 어른들이 다 떠나시니 나도 떠날**밖에**.

주의) '밖이' 명사로 쓰일 경우 띄어 쓴다. 단, '창밖', '문밖'은 붙여 쓰는 한 단어임에 주의한다.

- ㉢ • 그V밖에 더 논의할 사항은 두 가지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집V밖에 나가서 놀지 않을래?

문 16. 다음 글의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市)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는 항만의 끝에 이르러서야 잘려졌다. 석탄을 싣고 온 화차(貨車)는 자칫 바다에 빠뜨릴 듯한 머리를 위태롭게 사리며 깜짝 놀라 멎고 그 서늘에 밀구멍으로 주르르 석탄 가루를 흘려보냈다.

집에 가 봐야 노루꼬리만큼 짧은 겨울 해에 점심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우리들은 학교가 파하는 대로 책가방만 던져둔 채 때를 지어 선창을 지나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에 갔다.

제분 공장 별 잘 드는 마당 가득 깔린 멍석에는 늘 덜 건조된 밀이 널려 있었다. 우리는 수위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마당에 들어가 멍석의 귀퉁이를 밟으며 한 움큼씩 밀을 입 안에 털어 넣고는 다시 걸었다. 울울이 흠어져 대글대글 이빨에 부딪치던 밀알들이 달고 따뜻한 침에 의해 딱딱한 껍질을 불리고 속살을 풀어 입 안 가득 풀처럼 달라붙다가 제법 고무질의 질긴 맛을 낼 때쯤이면 철로에 닿게 마련이었다.

우리는 밀검으로 푸우푸우 풍선을 만들거나 침목(枕木) 사이에 깔린 잔들로 비사치기를 하거나 전날 자석을 만들기 위해 선로 위에 얹어 놓았던 못을 뒤지면서 화차가 당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화차가 오고 몇 번의 덜컹거림으로 완전히 숨을 놓으면 우리들은 재빨리 바퀴 사이로 기어 들어가 석탄 가루를 훑고 이가 벌어진 문짝 틈에 갈퀴처럼 팔을 들이밀어 조개탄을 후벼내었다.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짙싼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든 석탄을 팔에 안고 낮은 철조망물 깨금발로 뛰어넘었다.

선창의 간이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찌뽕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어쨌든 석탄이 선창 주변에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있는 현금과 마찬가지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고, 때문에 우리 동네 아이들은 사철 검정 강아지였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에서 -

- ①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다.
- ② 항만 북쪽에는 제분 공장이 있고, 철도 건너에는 저탄장이 있다.
- ③ 선로 주변에 아이들이 넘을 수 없는 철조망이 있다.
- ④ 석탄을 먹을거리와 바꿀 수 있는 간이음식점이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소설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는 한 소녀로 설정된 '나'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담아 낸 성장 소설입니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인 '중국인 거리'는 '나'의 유년 시절을 보낸 공간이며, 6.25 전쟁이 끝난 직후 하층민들의 피폐한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공간입니다.

- ① [O] '시를 남북으로 나누며 달리는 철도라는 표현을 통해, 철길 때문에 도시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② [O] '항만의 북쪽 끝에 있는 제분 공장, '철도 건너 저탄장'의 표현을 통해, 항만 북쪽에는 제분 공장이 있고 철도 건너에는 저탄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③ [X] '철도 건너 저탄장에서 밀차를 밀며 나오는 인부들이 시커멓게 모습을 나타낼 즈음이면 우리는 대개 신발주머니에, 보다 크고 몸놀림이 짝한 아이들은 시멘트 부대에 가득 든 석탄을 팔에 얹고 낮은 철조망을 깨달로 뛰어넘었다.'를 통해 아이들이 철조망을 쉽게 넘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④ [O] '선장의 간이음식점 문을 밀고 들어가 구석 자리의 테이블을 와글와글 점거하고 앉으면 그날의 노획량에 따라 가락국수, 만두, 쪄빵 등이 날라져 왔다', '석탄은 때로 군고구마, 딱지, 사탕 따위가 되기도 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석탄을 먹을거리와 바꿀 수 있는 간이음식점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 17.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풀어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2004년 1월 태국에서는 한 소년이 극심한 폐렴 증세로 사망했다. 소년의 폐는 완전히 망가져 호물호물해져 있었다. 분석 결과, 이전까지 인간이 감염된 적이 없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소년은 공식적으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H5N1의 첫 사망자가 되었다. 계절 독감으로 익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이렇게 치명적일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면역 반응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입하자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 도리어 인체에 해를 끼친 것이다. 이런 현상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 부른다. 사이토카인 폭풍은 면역 능력이 강한 젊은 층일수록 더 세계 일어난다. 만약 집에 ㉠ 졸도독이 들었다면 작은 손해를 각오하고 인기척을 내 도둑 스스로 도망가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데 만약 ㉡ 몽둥이를 들고 도둑과 싸우려 든다면 도둑은 ㉢ 강도로 돌변한다. 인체가 H5N1에 감염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처음으로 새가 아닌 다른 숙주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는 과민 반응한 면역계와 죽기 살기로 싸운다. 그 결과 50%가 넘는 승률로 바이러스가 승리한다. 그러나 ㉣ 승리의 대가는 비싸다. 숙주가 죽어 버렸기 때문에 바이러스 역시 함께 죽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악명을 떨치면서도 조류 독감의 사망 환자 수가 전 세계에서 400명을 넘기지 않는 이유다. 이 질병이 아직 사람 사이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도 바이러스가 인체라는 새로운 숙주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① ㉠: 면역계의 과민 반응
- ② ㉡: 계절 독감
- ③ ㉢: 치명적 바이러스
- ④ ㉣: 극심한 폐렴 증세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단어 및 어구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X] 졸도독은 자질구레한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의미합니다. 1문단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 자체로는 치명적이지 않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즉 '계절 독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② [X] 몽둥이는 도둑을 더 위협적인 강도로 돌변하게 만듭니다. 1문단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치명적으로 만든 '면역계의 과민 반응'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③ [O] 강도는 졸도독이 몽둥이로 인해서 위협적으로 돌변한 결과입니다. 1문단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계절 독감으로 익숙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졸도독)가 인간의 면역 반응(몽둥이)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 해를 끼친 바이러스(강도)로 돌변한 것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강도는 계절 독감이 돌변한 '치명적 바이러스'입니다.
- ④ [X] 승리의 대가는 숙주의 죽음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1문단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극심한 폐렴 증세가 아닌 '숙주 및 바이러스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18.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ㄱ. 1700년대 중반에 이미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은 영국인들의 평균 소득을 넘어섰다.  
 ㄴ. 그러나 미국은 사실 그러한 분야에서는 다른 산업 국가들에 비해 특별한 우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  
 ㄷ.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높아지게 된 배경에는 좋은 환경으로부터 비롯된 낙관성과 자신감이 있었다. 이후로도 다소 불안정하기는 했지만 미국인들의 소득은 계속해서 크게 증가했다.  
 ㄹ.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남북 전쟁 이후 급속히 경제가 성장한 이유를 농업적 환경뿐만 아니라 19세기의 과학적, 기술적 대전환, 기업이 정신과 규제가 없는 시장 경제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ㅁ. 미국인들이 이처럼 초기 정착기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비옥한 토지, 풍부한 천연자원, 흑인 노동력에 힘입은 농산물 수출 덕분이었다.

- ① ㄱ - ㄷ - ㄹ - ㄴ - ㅁ
- ② ㄱ - ㄹ - ㄷ - ㄴ - ㅁ
- ③ ㄹ - ㄴ - ㄹ - ㄱ - ㄷ
- ④ ㄹ - ㄹ - ㄴ - ㄷ - ㅁ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의 전개 순서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O] 선지는 ㄱ과 ㄹ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1700년대 중반 미국 이주민들의 평균 소득에 관한 화제를 제시하고 있는 ㄱ이 먼저 옵니다. 이어서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ㄷ이 오고 이에 대해 부연 설명하는 ㅁ이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경제 성장 이유에 대한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언급하는 ㄴ이 오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ㄴ이 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 19. 다음 글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이라 한다. 자신의 믿음이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수용하고 그에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심리 경향이다.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치알디니는 자신이 가진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는 두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첫째, 그러한 정보는 어떤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 준다. 둘째, 그러한 정보는 우리를 추론의 결과에서 자유롭게 해 준다. 즉 추론의 결과 때문에 행동을 바꿔야 할 필요가 없다. 첫째는 생각하지 않게 하고, 둘째는 행동하지 않게 함을 말한다.

일례로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아냈다. 이 판단의 과정을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도 촬영했다. 그 결과,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뇌 회로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자신이 동의하는 주장을 접했을 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뇌 회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① 사람에게서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② 사람에게서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
- ③ 사람에게서는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 ④ 사람에게서는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특성이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추론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1문단에 따르면,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추론한 것은 적절합니다.
- ② [O] 2문단의 예시를 보면, 사람들은 반대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거의 완벽하게 찾은 반면, 지지하는 당 후보의 주장에서는 모순을 절반 정도만 찾아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라고 추론한 것은 적절합니다.
- ③ [O] 1문단에 따르면, 확증 편향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지지자의 말은 기존의 견해와 일치하는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지자들의 말만을 듣고 자기 신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추론한 것은 적절합니다.
- ④ [X]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심리적 불안을 느끼는 사람의 특성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문 20. 밑줄 친 부분에서 행위의 주체가 같은 것으로만 묶은 것은?

금와왕이 이상히 여겨 유희를 방 안에 가두어 두었더니 햇빛이 방 안을 비추는데 ㉠ 몸을 피하면 다시 쫓아와서 비추었다. 이로 해서 태기가 있어 알[卵] 하나를 낳으니, 크기가 닭 되들이만 했다. 왕이 그것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주게 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다시 길에 ㉡ 내다 버리게 했다니 소와 말이 피해서 가고 들에 내다 버리니 새와 짐승들이 덮어 주었다. 왕이 쪼개 보려고 했으나 아무리 해도 쪼개지지 않아 그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어미가 이 알을 천으로 싸서 따뜻한 곳에 놓아두었더니 한 아이가 ㉢ 껍질을 깨고 나왔는데,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겨우 일곱 살이 되었을 때, 이미 기골이 뛰어나서 범인(凡人)과 달랐다.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나라 풍속에 ㉣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므로 그 아이를 '주몽'이라 했다.

금와왕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어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는데, 재주가 주몽을 따르지 못했다. 맏아들 대소가 왕에게 말했다. "주몽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일찍 ㉤ 없애지 않는다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하니 주몽은 좋은 말을 알아보고 적게 먹여서 여위게 기르고, 둔한 말을 ㉥ 잘 먹여서 살찌게 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설화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제시문은 동명왕 신화로 주인공인 동명왕의 이름을 따서 '주몽 신화'라고도 합니다.  
 ㉠: '몸을 피하는' 주체는 '유희'입니다. '금와왕이 유희를 방 안에 가두었더니, 햇빛이 방 안을 비추는데 (유희가) 몸을 피하면 다시 쫓아와서 비추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내다 버리게 했다'의 주체는 '금와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금와왕이 그것(알)을 버려서 개와 돼지에게 먹게 했으나 모두 먹지 않았다. (금와왕이) 다시 (알을) 길에 내다 버리게 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껍질을 깨고 나온' 주체는 아이, 즉 주몽입니다.  
 ㉣: '활 잘 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주몽'이라고 불렀다는 말이므로,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없애지 않는다면'의 주체는 '대소(금와왕의 맏아들)' 또는 '금와왕'이거나 그 둘을 포함하여 공동 주체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둔한 말을 잘 먹여서 살찌게 한 사람은 '주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 ㉥입니다.